

## 6·25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나?

- 세계교회들이 본 6·25 -

김 흥 수 (교수, 목원대 한국교회사)

박사학위 논문으로 6·25전쟁이 한국의 종교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글을 썼다.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한국인들이 생존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삼게 되었다는 것, 교회는 전후 민중의 원초적 욕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기복신앙을 확산시켰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교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6·25전쟁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문을 쓰고 나서 먼저 미국교회들이 6·25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전쟁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여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전쟁 중에 간행된 종교 저널을 읽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교회는 대부분 유엔군의 참전을 지지했으나, 소수이기는 하나 교회 내의 평화주의 단체들 중에는 유엔의 6·25 참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인교회 일각에서도 한국인들끼리의 내전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6·25 개입을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내에서도 전쟁 3년 동안 6·25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네바 세계교회협의회 도서관에 가서 6·25전쟁 문서를 열람하였다.

### 미국의 현 순 목사와 황사용 목사

먼저 미국의 교회들이 6·25전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나 하는 자료를 찾다가 1950년 7월 한인감리교회의 원로목사요 독립운동 지도자인 현 순과 황사용이 “미국 기독교 형제 자매에게”라는 제목의 영문 호소문 수천 장을 미국교회에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 교회의 좌파인물 케니쓰 레슬리(Kenneth Leslie)가 발행하고 있던 *The Protestant* 라는 잡지가 이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이 호소문이 『독립』이라는 교포신문의 영문판과 한글판에도 게재된 것을 발견했다. 호소문은, 인민군의 남한 침략이 ‘분열된 조선을 다시 통일시키기 위한 내전’이며 따라서 이 내전에 미국이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소위 북군이 남선을 침입했다는 것은 분열된 조선을 다시 통일시키기 위한 내전이며 그로 인하여 통일된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 뿐임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외국이든지 우리 내전에 간섭함을 원치 않습니다.”<sup>1)</sup>

당시 6·25전쟁이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은 현 순과 황사용만의 주장은 아니었다. 미국 웨이커교 역시 6·25를 북한정부의 ‘무력에 의한 통일전쟁’으로 보았다. 이 성명을 낸 현순 목사는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서울의 상동교회와 정동교회에서 목회했고 3·1운동 이후에는 상해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바 있었다. 황사용도 일찍이 도미하여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교포들의 단합과 애국운동에 기여한 목사였다.

---

1) 『독립』 1950년 7월 26일.

그런데 현 순과 황사용의 주장은, 6·25전쟁을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전쟁 개입을 비난했던 북한교회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다. 전시에 이북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런 호소문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미국에서 그것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정동교회에서 일했던 교역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현 순과 황사용의 호소문은 미주지역에서의 좌파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미주지역에서의 좌파 독립운동 세력의 형성은 감리교신학교와 일본 청산학원에서 공부한 후 진남포에서 목회하던 이경선 목사가 1938년 도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홍사단에서 활동하던 진보세력과 함께 홍사단에서 탈퇴하여 1938년 중국에서 무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의용대의 미주후원회에 가담하였다. 이 후원회는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로 개편되는데,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으며 정치적 이념으로는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해방 이후에는 그러한 정치적 성격이 더욱 분명하여, 미주총지부에서 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던 신문 『독립』은 친북적인 기사를 많이 실는데, 특히 6·25전쟁 이후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44년부터 1947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할 때까지 현 순 목사는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지부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1월 현 순 목사는 『독립』의 사장에 취임하는데, 호소문 ‘미국 기독교 형제 자매에게’는 그가 이 신문의 사장으로 있을 때 발표한 것이었다.

현 순 목사의 사회주의 접촉은 그가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는 무렵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김일성의 전기 『세기와 더불어』는,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국공제공산당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들이 적지 않았으면서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현 순을 그 예로 들고 있다.

##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입장

6·25전쟁에 대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은 세계교회협의회였다. 세계교회협의회는 1950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논의하고 ‘한국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침략행위가 저질러졌다.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인인 유엔한국위원단은, ‘모든 증거는’ 북한군에 의해서 ‘비밀리에 준비되고 시작된 계획적인, 조정된 침략’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정책의 도구로서의 무장침략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서서 신속한 결정을 취해 줄 것과 모든 회원국이 지원하는 경찰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권고한다.”<sup>2)</sup>

세계교회협의회는 토론토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장 침략은 잘못된 것이며,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설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 성명이 준비될 때, 한국문제는 분명해 보였다. 유엔 한국위원단은 이미 북한에 의해서 침략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을 파병하여 이 침략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뒤였다. 따라서 세계교회협의회가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 질서를 준수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성명서는 전쟁에 대한 평화주의 입장을 가진 중앙위원회 위원 두 사람이 기권한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체코

---

2) 김홍수 편,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자료집 - 한국전쟁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22-23쪽.

나 중국 등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해 있던 공산권 교회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잘 계획된, 공동으로 준비된, 전면적인 남한침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 성명을 낸 것이었다. 전쟁 발발의 책임을 북한 측에 돌린 서울 주재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고는, 그 밖에도 남한군의 배치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남한은 완전히 기습당했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가 ‘국제법의 위반’이라는 법률적 관점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남침 사건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률적 관점은 미국교회의 입장이기도 했다. 유엔의 참전이 미국교회의 지지를 받은 것은 유엔의 행동이 세계질서 체제의 첫 단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엔 참전이 모든 미국교회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화해를 위한 교제’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같은 웨이커교의 노선을 따르는 평화주의 단체들은 군사력을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정책에 반대했다. 이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상황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던 바로 그 날 유엔의 무력개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유엔이 세계 지도자들을 통해 전쟁의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화해를 위한 교제’ 외에도 간디의 지도력을 이어받고 있는 인도의 네루에게 중재를 부탁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주의 단체도 있었다. 세계교회협의회 회원들이었던 토론토회의에 참석했던 라인홀드 니버는,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을 따를 경우 아시아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원래 니버는 ‘화해를 위한 교제’의 회원이었으나 1934년 이 단체에서 탈퇴하여 사회윤리적 사고에서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한 인물이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국제법의 위반이라는 각도에서 한국전쟁에 접근했지만, 중앙위원회가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서구교회들의 공산

주의에 대한 불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선과 악의 대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교회들은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따라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휴전 협상을 지지하였다. 이 무렵 이승만을 포함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휴전보다 통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압록강까지 진격할 것을 원했다.

### 공산권 교회의 입장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가 낸 6·25전쟁 성명에 대해 세계교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공산국가들인 헝가리, 체코 및 중국교회만큼 그 성명에 격렬하게 항의한 교회는 없었다. 당시 헝가리나 체코 그리고 중국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동구에서는 헝가리개혁교회의 총회장 엘버트 베레츠키와 체코 개혁교회의 신학자이며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으로 일하고 있던 요셉 로마드카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권고하는 세계교회협의회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로마드카는 1950년 11월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비쉴트 후프트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던 정기간행물 *Christianity and Crisis*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교회협의회 토론토 성명을 비난하였다.<sup>3)</sup> 로마드카는 먼저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이 “대단히 애매한 증거와 법적으로 불확실한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마드카가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를 ‘애매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은, 그것이 미국과 남한의 정보 그리고 두 명의 호주 장교들의 제한된 관찰에 토대를 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중앙위원회는 유엔 내 서방집단의 우세한 다수파의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악마적 유혹에 대해 서구사람들에게 경고했어야 했다. 한국문제

---

3) Josef L. Hromadka, “A Voice from the Other Side”, *Christianity and Crisis* (March 1951).

는 아시아 전체의 배경 없이는 이해될 수 없으며, 서구 국가들의 무력 간섭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드카에 의하면, 중국과 소련을 배제한 채 한국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되며, 한국 문제가 서구 국가들의 무력간섭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것을 경고해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 편지를 쓴 로마드카는 1938년 독일이 체코를 침략하자 그의 반나치 활동 때문에 미국으로 피신, 프린스턴신학교와 뉴욕시의 유니온신학교에서 강의하다 1947년 공산화된 그의 조국, 체코로 돌아와 프라하의 존 후스 신학교에서 일했으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코메니우스신학교의 학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로마드카는,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은 서구교회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구 기독교인들이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이고, 값싼, 그리고 독선적인 해석을 고수하는 한, 그들은 서구문명의 위기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로마드카에 따르면, 서구문명은 ‘본질적,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갱생’을 통과해야 하는 지나간 세력이며,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정치 및 사회질서가 실험 중이다. 10월 혁명은 현대의 사회질서와 문명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예컨대, 1948-49년의 중국혁명은 이러한 역사발전의 증거라는 것이다. 로마드카는, 이러한 관점에서 6·25도 서구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토대를 만들려는 역사발전의 한 증거로 이해했다.<sup>4)</sup>

로마드카에 의하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가 된다는 것은 낡은 불의를 제거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이 퍼지도록 도와주는 사회주의의

---

4) Josef L. Hromadka, “From Reformation to Tomorrow”, Milan Opocensky, ed., *From the Reformation to Tomorrow. In Memory and Appreciation of Josef L. Hromadka (1889-1969)* (Geneva: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1999), 16-26쪽. 로마드카의 글은 1955년에 쓴 것이다.

실현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을 뜻한다.”<sup>5)</sup> 그러나 서구 기독교는 새로운 질서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으며 이 점은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에 대한 공산권 교회들의 반응은 중국교회로부터도 나타났다.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창설될 때부터 중국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에 참여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에 대한 중국교회의 비난은 전쟁 발생 직후에도 있었지만, 1951년에 들어서면서 더 격렬해졌다. 1951년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151명의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북경에서 주은래 수상과 회합을 가진 후 낸 ‘중국 기독교회와 교회기관 대표들의 연합 선언’은,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이 북한 정부에 공격자의 누명을 씌우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국회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월 스트리트의 도구이자 한국전쟁의 선동자 덜레스(Dulles)의 도구’라고 비난하였다.<sup>6)</sup>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서에 대해 월 스트리트의 목소리와 대단히 유사하게 들린다고 항의했던 중국교회의 지도자 조자신은 1951년 세계교회협의회 공동의장직을 사임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미제국주의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때문이었다.

## 맺는 말

6·25전쟁에서 세계교회들이 취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유엔의 경찰행동을 권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침략이라기보다는 혁명의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이해하려

---

5) “World-Famous Theologian Hromadka Condemns War”, *The Protestant* (Jan.-Feb.-March 1951), p 4.

6) Wallace C. Merwin and Francis P. Jones, *Documents of the Three-Self Movement, Source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Protestant Church in Communist China* (New York: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urch in the USA, 1963), p 41-43 참조.



는 공산권 교회들이 볼 때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은 반공정책을 펴고 있는 서구국가들을 편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로마드카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서구국가들의 반공정책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6·25전쟁을 서구국가들의 지배로부터 남한사회를 해방시키기 위한 역사발전의 한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공산국가들과 전쟁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것은 6·25전쟁에 대한 맑시스트적인 관점인데, 공산권 교회들에서 그리고 북한교회에서도 이런 눈으로 6·25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6·25전쟁 시 무슨 이유로 남과 북의 교회가 각기 전쟁을 지원하고 정당화해 주었는가, 왜 서구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처럼 싸움을 말리는 일에는 나설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전쟁을 침략으로 보는 점에서는 서방교회들의 입장과 같았지만,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남한교회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을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 같은 신학적 메타포로 공격하였다. 요컨대 6·25전쟁은 선악 이원론에 근거한 한국판 십자군 전쟁이었다. 전사의 이 기류 속에서 휴전은 물론 남북간의 화해나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이라는 반공주의적 선민의식을 가진 교회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운동, 즉 종전운동이나 반전운동이 나올 리 없었으며, 유엔이 바라고 세계교회들이 요청했던 휴전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결박되어 있는 한 오늘날도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❷